



한국지방재정공제회 www.klfa.or.kr | 발행인 권혁인 | 발행일 2007. 11. 12 |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5 지방재정회관 T_02)3274-2114 F_02)3274-2009

창간호

발간사



이사장 권혁인

저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 재산의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 공제회로 창립된 이래 공유재산의 재해복구지원, 공공청사 정비를 위한 융자 지원, 손해배상공제사업은 물론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등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나름대로 일익을 맡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급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과 재정지원사업의 영역을 더욱 확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재정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공제회 임직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회원단체에서 저희 공제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공제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웠는데, 이는 저희 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데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기동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홍보수단의 다양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공제회의 경영성과, 공제지원실적, 공지사향 및 각종 단신을 시의성있고, 폭넓게 회원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식지를 통하여 회원의 저희 공제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제회는 회원보다 먼저, 회원의 편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앞서 실천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재정지원 전문기관이 되도록 가일층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제회 소식

권혁인 이사장, 전임 이사장들과 초청간담회 가져

권혁인 이사장은 11월 1일 전임 이사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임이사장은 5·6대 장병구, 7대 문창수, 8대 박종우, 9대 김용선, 10대 김충규, 11대 오형환, 12대 조기안 이사장 등 7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들의 재임시 이루어낸 경영성과와 현재 공제회 위상을 확립해준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특히 “지방재정 총규모가 100조원 시대를 넘어선 지금 공제회가 나아가야 할 미션과 방향을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전임 이사장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공제회가 더 도약할 수 있기 위한 경영자문을 구했다.

이에 장병구 이사장 등 전임 이사장들은 재임당시의 경험 등을 회고하면서 공제회의 설립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고객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화답하고 아울러 공제회 조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

축도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오찬을 곁들여 약 2시간여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권이사장은 전임 이사장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제회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3대 이사장에 권혁인 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취임

권혁인 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이 지난 9월 3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3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권 이사장은 1956년 강원도 강릉출생으로 강릉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77년 제19회 행정고시에 합격, 내부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였다.

강원도 삼척군수·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단장, 지방자치국장을 지내고,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을 거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등을 역임한 권 이사장은 소신있고 전문성있는 업무추진은 물론 원만하고 합리적인 인품으로 행정자치부내 고위·하위를 망라한 공무원들로부터 신망받아온 정통 내무관료 출신이다.

권 이사장은 이날 임직원전원이 참석하여 가진 취임식에서 “공제회가 고객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는일에 대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특히 강조하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창립 43주년 기념행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07년 9월 12일 창립 43주년을 맞아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권혁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공제회의 설립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사업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회원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강화와 조직구성원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일반직 4급 신동현씨가 10년 근속표창을 받았으며, 일반직 2급 이경행씨와 동 4급 이종원씨가 직원제안공모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격월간 「지방재정」 및 「지방세」지를 합본하여 월간 발간하기로 결정

격월간으로 분리발행되어 오던 「지방재정」 및 「지방세」지가 합본되어 월간으로 발행된다.

그동안 포괄적으로 지방재정 부문의 성격을 갖는 두개 도서의 중복발행으로 독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용의 효용성이 저하되었으며, 그것도 격월간으로 배부됨에 따라 신속한 정보 및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다.

합본지는 보다 품격높은 지방재정·세제분야의 명실상부한 종합전문교양도서로 재창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연찬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 연구조사팀 신설 · 운영

공제회는 총규모가 100조여원 시대를 넘어선 지방재정의 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장기적 비전모색을 위한 종합적 연구업무를 추진할 「연구조사팀」을 11월 1일부터 신설 · 운영한다.

「연구조사팀」은 지방재정부문의 각종 정책아이디어와 어젠다를 개발 · 생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심도있는 이론개발 및 중장기적 지방재정발전전략 수립, 지방재정관련 동향 · 통계 등의 신속한 분석 · 제공은 물론 전문가집단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성 등 각종 연구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지방재정부문의 중추적인 싱크탱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부 동향

1 서울특별시지부, 일반손해보험 만기된 7개 시립청소년수련관을 본회에 가입등록

서울시 공유재산중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시설(수련관18,특화시설10)은 지금까지 각 법인에 위탁관리하여 각 법인에서 일반손해보험사에 손해보험가입(화재,손해배상등)을 하여왔으나,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서울시 청소년 위탁기관 운영자회의에서 일반 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물의 보험만기 시 본회에 가입토록 결정함으로써 보라매수련관 등 7개 수련관을 본 회에 공제등록하였다.

서울특별시지부는 향후에도 서울시 공유재산중 위탁시설에 대하여 일반손해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본회 가입을 유도하여 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및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의 용이함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2 전라북도지부 재산관리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전라북도지부에서는 재정과와 함께 2007년 10월 25일부터 26일

까지 전북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시·군의 재산관리담당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업무관련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에서는 공제회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업이 회원의 지방재정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의 편익제공에 기여하는 공제제도임을 홍보하였다.

3 전라남도지부 영조물배상공제 홍보교육 실시

전라남도지부에서는 지난 9월 10일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주관으로 재무과(재산관리팀)를 비롯하여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및 건설과 등의 공무원 69명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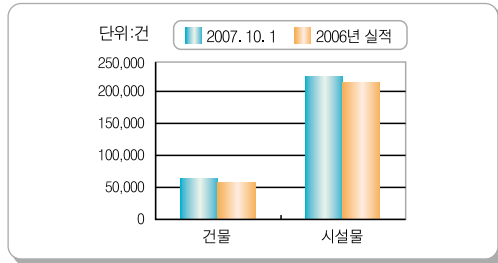
홍보교육에서는 특히 참석대상자가 도로과 · 건설과 등 도로와 연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등 성황리에 홍보하였다.

2 / 3/4분기 공제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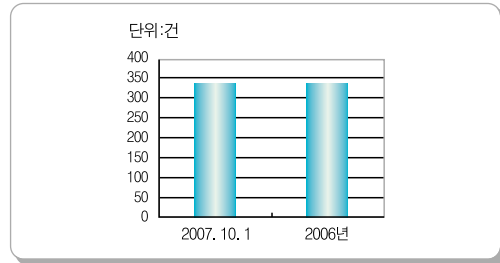
재해복구 35건, 5억 5천만원
손해배상지원 2,129건,
23억 6천만원 등 지급

공제회는 3/4분기까지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지원의 경우 35건, 5억5천만원, 손해배상금지원은 영조물배상의 경우 2, 120건, 2,229백만원, 업무배상의 경우 9건, 134백만원 등 총 2,129건, 23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등록물건은 재해복구공제사업 288,584건(건물 58,487건, 시설물 230,001건),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영조물 45,722건, 업무배상 12,546명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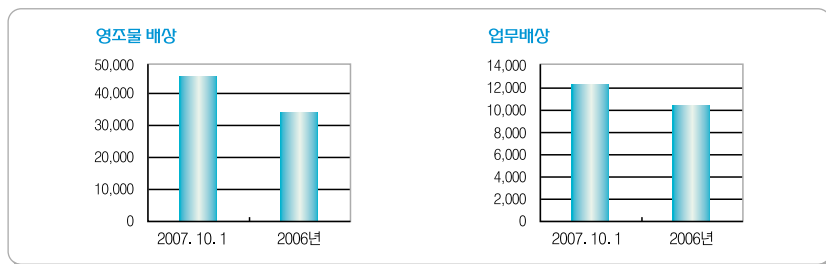
▶ 재해복구지원 등록물건



▶ 지방관공선공제사업 등록물건



▶ 손해배상공제사업 등록물건



3/ 공제제도 개선안내

테러로 인한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지원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바,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테러로 인한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을 기본보상범위에 포함시켜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안정적 안전장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첫째, 공제등록하는 물건의 위험에 따라 회비요율을 차등화 하여 재해발생의 빈도가 낮은 물건에 대해서는 공제회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위험보유에 따른 회비부담을 현실성 있게 바꾸었다.
- 둘째, 공제등록구분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등록되었던 공제등록금액을 자율화하여 공유재산의 가치에 맞게 공제등록하여 재해발생시 공제금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셋째, 전기위험, 구내폭발, 신체손해 및 소요 등 보상하는 손해를 확대하여 보유한 위험에 맞는 보상조건을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경제상식

■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 ▶ 정의 : 소득 및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 대출
- ▶ 발생원인
 - 2004년 이후 서브프라임 대출 급증 이후 금리상승에 따른 연체율 증대로 모기지 부실화 초래
- ▶ 효과 및 영향
 - 모기지와 파생상품이 연계되어 정확한 손실규모 파악에 한계
 - 엔케리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가능성
 - 실물경제로 영향이 확대되어 경제 침체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주요 변동성 요인임

■ 펀드현황('07. 10. 19)

- ▶ 펀드규모 : 278조
 - 국내펀드 : 219조(주식형 92조)
 - 해외펀드 : 59조(주식형 40조)
- ▶ 주요 펀드
 - 중국 및 홍콩관련 펀드
 - 동유럽펀드
 - 브릭스펀드 :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에 분산 투자
 - 사회책임투자펀드(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